

365

INVENTION

얼굴 감식방법

지구촌 어디에도 얼굴 모습이나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 쌍둥이 같이 똑같은 모습도 조금만 세밀히 보면 다른 곳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특정인을 찾아낼 때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지문감식을 이용하지만, 감쪽같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여기에 썬치를 막는 발명품이 등장했다. 바로 '얼굴감식방법'. 미국 뉴욕의 기술자 피터 탈이 발명가이다.

피터는 간단한 수학방식에서 힌트를 얻어 이 발명을 하게 되었다. 이 수학방식의 원리는 영상 프로세서가 얼굴을 흑백사진으로 찍은 뒤 사진을 디지털 부호로 옮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코밑과 입술 중앙, 입술 주위의 특징만도 100가지 이상이 있는데, 이 특징들을 50개 정도의 정보로 압축, 숫자로 만들어 자기테이프에 입력한다.

얼굴 상처 없애는 화장품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여파로 전 일본인들은 공포와 고통에 휩싸였다. 이때 죽은 사람들 명단에 35세였던 후미코의 남편도 포함되어 있었다. 후미코에게 그 충격은 너무나 컸다. 게다가 그녀의 얼굴에 난 보기 흉할 정도의 상처는 피부과 전문의가 치료를 포기할 정도로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후미코는 자신의 추함과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의 근본과 그 해결방법을 스스로 찾기로 결심했다. 후미코는 의약과 화학세계에 대하여 맨 밑바닥에서부터 공부하고, 자신의 얼굴에 다른 로션을 사용하며 상처를 없애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2년 후, 그녀의 발명이 성공했을 때 산쇼라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발명품은 '프로메'라는 상표의 의학적 화장품으로 팔리게 되었다.

얼음톱

마치다 세시로는 일본 우라와시의 작은 제빙공장 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청년시절을 밤낮 노는 일에만 열중하느라 다 보내고, 28세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려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여름이 되면서 얼음 공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일손이 모자라 마치다도 톱으로 얼음을 잘랐다. 그러다가 기계문명시대에 걸맞지 않게 톱으로 일일이 얼음을 자르는 원시적인 방법을 개선하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매일 제재소를 견학하고, 그 원리를 토대로 얼음을 자르는 기계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드디어 마치다는 나무를 자르는 톱의 원리를 응용한 얼음용 톱을 발명했다. 원리는 제재소 톱과 비슷하고 단지 톱날만을 쉬 녹을지 않는 특수강철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너무나 놀라웠다.